

# 소치 달구는 '피겨 삼국지'

한



김연아

리



리프니츠카야

일



아사다 마오

### 김연아 '디테일'·리프니츠카야 '파워'·아사다 '모험' 지구촌 이목 집중... 조추첨, 김연아 3조 17번 '유리'

'신예의 패기 넘치는 파워나, 베테랑의 탁월한 디테일이나, 그도 아니면 짝꿍을 노린 도박이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여왕' 자리를 놓고 '한·러·일, 피겨 삼국지'의 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피겨 여제' 김연아(24)가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요정'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러시아)가 도전장을 던졌다. 아사다 마오(24·일본)는 부진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혈전은 이미 시작됐다. 먼저 연기순서 추첨에선 김연아가 웃었다. 17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플리스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소프트웨어 연기순서 추첨에서 김연아는 3조 5번째에 17번을 뽑았다. 러시아의 신예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는 5조 첫번째로 연기하고, 일본의 간판 아사다 마오는 30번으로 마지막 조의 마지막 순서를 받았다.

김연아는 소프트웨어에서 마지막 순서에 배당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위망업을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대기실에서 긴장 속에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먼저 연기할수록 앞선 선수들의 경기로 얼음판이 파이는 일이 적어 스케이트날이 끼이는 등의 변수로부터 자유롭다.

필살기는 김연아가 한 수 위다. 특히 점프는 단연 김연아다. 트레이드마크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은 기본 점수만 10.10점인 고난도 3회전 연속 점프다. 수행점수(GOE)까지 더해 11~12점을 받아놓기 시작한다.

리프니츠카야도 김연아와 점프의 시차는 똑같다. 하지만 풀 크이 다르다. 김연아의 점프 높이는 약 60cm인 반면 리프니츠카야는 약 40cm다. 높이가 떨어지다보니 빨린 돈다. 우아함과 거리가 멀다. 비거리도 7.6m인 김연아가 리프니츠카야에 비해 약 2.5~2.6m 길게 뜬다. 보는 사람이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연기를 한다.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등 김연아는 무리를 하지 않는다. 점프의 경우 기본 점수는 리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소프트웨어 조추첨 결과

연기순서	이름	국가
2	박소연	한국
11	김해진	한국
17	김연아 3조 5번째	한국
25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러시아
30	아사다 마오 마지막 순서	일본

프니츠카야, 아사다에 낮지만 완성도가 높다. 탁월한 연기력을 더해 예술성으로 연결된다.

피겨 제정은 소프트웨어(2분50초)와 프리스케이팅(4분10초) 모두 기술점수(TES)와 구성점수(PCS)를 더한 뒤 감점을 빼는 방식이다. 그리고 기술, 동작 연결, 연기, 안무, 곡 해석 등 5가지 구성 점수가 더해진다. 김연아는 구성에선 독보적이다.

리프니츠카야는 체조 선수 출신이라 놀라운 유연성을 자랑한다. 스피인은 으름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전이 빠르고, 연기도 현란하다. 단체전에선 최고 레벨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불안한 점프다. 아웃에지로 뛰어야 하는 트리플 러츠와 인에지로 뛰어야 하는 트리플 플립에서 고질적인 통어지 문제를 안고 있다.

아사다는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 반)로 통한다. 여자 선수 중에는 유일하다. 그러나 시도하는 것과 성공률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했다. 아사다는 프리스케이팅에서 2번 시도하던 트리플 악셀을 1번으로 줄였다. 대신 트리플 악셀 점프를 포함해 트리플 점프 6종류를 8차례나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3회전 연속 점프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아사다에게 도박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8차례는 무리라는 평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FC 전후지미 시즈오카를 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광주FC 여름·김호남·임선영 선수.

## 터줏대감 3인방 승적 역사 함께 쓴다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는 올 시즌 1부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빠른 선수단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33명이었던 선수단 규모가 28명으로 줄었고 7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 얼굴로 교체했다. 사실상 재창단에 가까운 대변화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세 명의 선수가 있다. 올 시즌 광주의 공격을 매섭게 만들 공격수 임선영(26)·김호남(25)·미드필더 여름(25)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2011년 광주가 탄생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임선영·김호남은 광주에서 첫 발을 내디딘 창단 멤버. 1년 늦게 입단한 여름은 광주대 선수로 관람석에서 고향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봤다. 김호남과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각별한 친구이기도 하다.

그라운드에서 또 관중석에서 가슴 뭉클했던 순간을 함께 한 이들은 광주의 4번째 이야기를 써나가기야 할 광주의 터줏대감이다.

승적이라는 목표로 캠프가 뜨겁지만 시즌 첫 훈련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세 선수의 가슴은 서늘했다. "내가 이직생이 된 것 같다"고 머쓱해할 정도로 2013년 가을과는 많은 게 달라져있었다.

화려했던 출발과 환호, 갈등과 사령탑 교체 그리고 강등. 특히 30년 같은 3년을 보내며 매년 정든 동료와 작별을 해왔던 임선영·김호남에게 이번 겨울은 더 힘겨웠다.

여름이 '날개 없는 천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 많고 사람 좋은 임선영은 "올해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떠났다. 나는 이곳에서 잘 됐지만 함께 한 애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훈련을 했었다"고 말했다.

가장 힘겨운 겨울이었다는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광주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김호남은 "처음 창단했을 때보다 어색했었다. 새로 온 선배들이 나이 차이가 많아서 선입견을 줬던 것 같다. 선배들은 벽을 안 뚫었는데 내가 벽을 뚫어줬다. 그걸 옆에보자는 마음으로 하니 편해졌다"며 "또 올해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도 있다. 지난해 카를로스 피치컬 코치가 온 뒤 힘들기는 했지만 신기하게 경기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캠프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자 시즌 준비도 순조롭다. 고참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이 체계를 잡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캠프와 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

임선영은 올 시즌 욕심을 부릴 생각이 없다. 임선영은 "(박)병주 형이 쉬면서 벼를 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확량을 비교해보니 쉬어가면서 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쉬는 도중 낫을 갈면서 준비를 했고, 열심히만 한 사람은 무던 낫으로만 하느라 그랬다는 뜻이었다"며 "나는 지금 낫을 갈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은 많이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욕심을 부리고 싶다. 우승에 대한 상상은 끝났다"고 말했다.

김호남과 여름이 생각하는 2014시즌도 같다. 친한 친구끼리 우승 역사를 만드는 게 이들의 꿈이자 목표다.

여름은 "대학 때부터 각별했던 친구 호남이와 둘이 나란히 선발 멤버로 나가던 날 울컥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 친구와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우승의 소름끼치는 순간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 달려라! 대한민국

한국 봅슬레이의 김동현·전정린 조가 17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산악클러스터의 산기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2인승 1차 레이스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1·2차 합계 1분55초54의 기록으로 30개 출전팀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충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